SK 증권
Analyst 김도하 · 02-3773-8876 · doha.kim@sk.com

Issue Comment

✓ 실손보험 감리 결과 문제시 된 계약은 전체의 1.2%에 불과

✓ 오히려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폭이 적절했으며, 내년 보험료 조정률과는 별개의 이슈임을 시사

✓ 기존의 보험료 인상으로 17 년부터 실손손해율 하락 전망 유지

실손보험 감리 결과: 실손보험료의 적정성 인정

- 금융감독원은 2008 년 5 월 이후 판매된 실손상품에 대해 24 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 사후감리를 실시. 2015 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상된 실손 보험료와 관련해 요율 산출 시 위험률, 사업비율 책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

- 감리 결과 하이라이트: "대부분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기준 및 절차 관련 내부통제 기준은 적절", "최근 의료비 증가율 및 보험사의 실손 손해율을 감안 시 **전반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과도하지 않음**", "감리결과의 영향은 금년도 손해율이 반영된 내년도 실제 보험료 조정률과 차이가 있음", "본 감리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와 무관"

- 일부 지적된 문제는 5 가지로, ① 생보사의 표준화 전/후 상품의 요율 역전, ②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 과다책정, ③ 장래 예상손해율 추정 시 손해진전계수 적용의 일관성 훼손, ④ 올해 실손보험료 산출 시 추세모형을 보험료 인상률이 높은 쪽으로 임의 선정, ⑤ 부가보험료 과다책정 등. 이로 인해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이전 상품 갱신보험료는 15% 수준 인하, 손보사의 표준화 상품 보험료는 0.5~2.0% 인하될 것으로 발표

- 다만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감리결과에 따른 보험료 인하율 추정이므로 올해 손해율을 기반으로 한 내년 보험료 조정률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혀, 연초마다 시행되는 위험률 조정과는 독립적인 이슈인 것으로 판단. 또한 감리 결과 문제가 된 계약은 전체 계약의 1.2% 수준으로, 100 억원대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됨 (실손보험 시장 규모 연간 4~5 조원 수준으로 추산)

- SK 증권은 이번 감리 결과가 오히려 지금까지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하며, 기존 보험료 인상률에 따라 2017 년부터 실손손해율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함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내용 요약

지적사항	대상규모	변경권고
생보사의 표준화 전/후 상품의 요율 역전	약 5만건	일부 생보사의 표준화 전 실손상품 갱신보험료 15% 인하 예상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 과다책정	약 2.6만건	노후실손보험료 동결 또는 인하 전망
장래 예상손해율 추정 시 손해진전계수 적용의 일관성 훼손	약 33만건	표준화 실손상품 갱신보험료 0.5~2.0% 인하 예상
올해 실손보험료 산출 시 추세모형을 보험료 인상률이 높은 쪽으로 임의 선정		
부가보험료 과다책정		

자료: 금융감독원,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